

## 한국 만화의 새 지평 여는 '삼인방'

만화계에 돌풍 일으킨 젊은 만화가 조재호 · 박수영 · 엄혜진씨

만화는 이제 신문 지상에서도 출판과 동등한 분량으로 다뤄질 만큼 중요한 출판문화의 하나가 됐다. 이른바 '공장만화'를 주축으로 한 대본소 시대, 불법 일본만화의 유입, 도서대여점의 등장, 음란·폭력성과 관련한 정부의 단속, 잡지의 전성시대 등으로 이어진 90년대 한국만화계의 숨가쁜 변화. 90년대에 데뷔한 젊은 만화가 세명이 자신들이 느낀 이 변화의 본질과 21세기 한국만화의 모습을 얘기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조재호의 <족구기관차>, 박수영의 <삼국장군전>, 엄혜진의 <호협애사>의 컷.

**조재호** —— 저는 배금택 선생님의 문하생으로 들어가면서 만화를 처음 그렸습니다. 문하생부터 시작하면 체계적으로 기초를 익힐 수 있어 좋습니다. 하지만 '공장만화'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채관계보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자기 작품을 준비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도 있습니다.

**박수영** —— 저 역시 5년 정도 문하생 생활을 거쳐 데뷔했습니다. 보통 만화계에 입문하면 데뷔까지 10년 정도 잡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0대 초반에 입문해 30대 초반에 데뷔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때까지 뒷처리·배경·터치·마스크·데생·스토리의 순으로 배우게 되죠. 이렇게 준비기간이 길다보니 돈에 굴복하거나 의지를 잃게 되는 경우도 많았죠. 하지만 요즘은 기본적인 것만 배우면 나가서 자기 작품하라는 분위기가 강하죠.

### 문하생 VS 공모전 출신

**엄혜진** —— 저는 공모전을 통해 데뷔했습니다. 제 경험에 비춰 만화동아리쪽의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예전과 달리 지금은 남자도 많이 참여하죠. 3백권 정도 분량으로 회지를 내기도 하지만, 만화에 대해 체계적으로 배우는 것은 아니고

스스로 준비하는 경우가 많죠. 프로 데뷔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취미로 만화를 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박수영** —— 공모전 출신은 애드립과 캐릭터가 강하고 감각이 좋아 그림이 살아 있는 반면, 기본기가 약한 단점도 있습니다. 한편 문하생 출신은 그림이 굳어 구닥다리 같은 느낌이 들지만, 기본기가 강하죠. 어쨌든 중요한 것은 공모전 출신이나 문하생 출신이나 자기 작품으로 데뷔하는 사람은 10%정도가 아닐까 하는 점입니다. 요컨대 데뷔는 개인적 노력의 소산일 뿐이죠.

**조재호** —— 97년 정부의 만화탄압 이후 시장 규모가 상당히 줄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이 나가는 작가와 적게 나가는 작가의 구분이 뚜렷해지는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연재 초기에 인기가 없으면 당장 지면이 없어지는 경우도 흔하구요. 공장만화의 폐해에서 바로 몇몇 작가 중심으로 만화시장이 움직이는 현상이 시작되었습니다. 10명이 10개씩 나눠먹는 것보다 100명이 1개씩 나눠먹는 만화시장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한 분야를 계속 파고드는 작가정신이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이죠.

**박수영** —— 공장만화의 경쟁력은 상당히 줄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만화시장의 주류

인 연재만화는 양보다 질에 더 강조점이 놓이기 때문이죠. 현재 전체 규모를 다 합치면 만화시장의 규모는 20만부 정도가 아닐까요? 이를 메이저 3사가 나눠 먹는 시스템이죠. 일본에 비하면 소규모지만, 저는 낙관적입니다. 만화인구가 수도권에 모여 있어 지방까지 시장을 확대한다면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죠. 그래서 저는 시장에 대한 걱정보다 그 시장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예전대 다양한 이벤트를 동원해 시장을 확대하는 방법이 있겠죠.

**엄혜진** —— 저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쉽게 데뷔했다고 할 수 있어요. 또 데뷔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구요. 그래서 그런지 현재 만화시장에 대한, 그다지 뚜렷한 견해가 없습니다. 다만 예전에 활동했던 분들보다는 운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잡지도 예전보다는 많아져 발표할 지면도 풍부하죠. 공장만화에 대해서는 아는 바도 없지만, 잡지 연재는 여럿이 함께 일할 필요도 없죠. 저 같은 경우는 혼자서 다 그리거든요.

### 만화시장의 새로운 변화

**박수영** —— 그런 점에서 저는 대역점 역시

**엄혜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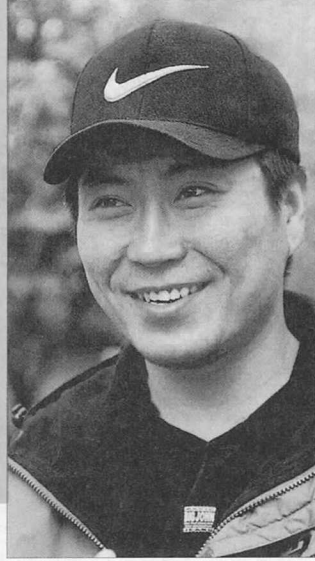
1975년생. '다이모니온' 등 만화동아리를 거쳐 1997년 <이슈>의 신인공모에 단편 <인단자>가 당선되면서 데뷔. 1999년 초부터 <부킹>에 <호협애사> 연재 중. 단행본으로 <호협애사> (학산)가 있음.(왼쪽부터)

**조재호**

1968년생. 1987년 만화가 배금택의 문하생으로 들어가면서 처음 만화계 입문. 1992년 챔피언 화대상공모에 당선되면서 데뷔해 <가자, 바그다드로> 연재. 현재는 배금택의 <폭주기관차>를 리바이벌해 <아이큐점프>에 연재 중. 단행본으로 <다이어트 고교>(서울문화사)가 있음.

**박수영**

1972년생. 5년간의 문하생 생활 끝에 1997년 <아이큐점프>에 단편 두개를 실으면서 데뷔. 이후 <소년챔프>로 옮겨 1997년 11월부터 <삼국정군전> 연재 중. 단행본으로 <삼국정군전> (대원)이 있음.



긍정적으로 봅니다. 단행본으로 출판된 연재만 화 중 일정한 부수를 대여점이 소화하거든요. 예전에는 단행본 시장의 등락폭이 심했고 또 그 차도 컸죠. 하지만 대여점이 나온 뒤로는 신인작가라도 일정한 부수는 팔려 많은 경제적 도움을 줍니다. 물론 일본처럼 일반독자가 단행본 시장의 주고객이 된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지만요.

**조재호** —— 대여점이 생기면서 저는 판매부수가 반 정도 떨어졌습니다. 만화가들은 대여점 문제에서 포기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저는 어느 정도 혼합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컨대 대여점을 이용하되 마음에 드는 작품은 직접 구매해 단행본 시장을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사실 서점에서도 만화책은 출판물로 보지 않거든요. 구매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야 서점에도 비치될 것이고 전체적으로 시장도 확장될 것이라고 봅니다.

**엄혜진** —— 대여점만 사쥬도 신인작가에게는 큰 도움이 된다는 말은 맞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대여점을 없애야 한다는 얘기도 나오죠. 사보지 않고 빌려본다는 게 문제라는 말인데, 저는 마음에 드는 책은 모두 사서 봤어요. 동네서점이나 청계천 같은 곳에서도. 잘은 모르지만, 일반독자들도 그림이 마음에 든다면 직접 사서 보지 않을까요?

**조재호** —— 이제는 만화책을 쉽게 내지 못합니다. 일본만화 때문이죠. 일본은 3대 만화잡지가 한 주간 수백만부씩 팔리는 만화대국입니

다. 만화팬만 해도 1억이 넘고 만화가의 수도 우리의 1백배입니다. 그런데 그 곳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일본만화들은 이미 검증이 끝난 작품입니다. 오랫동안 기획해서 1년에 네권 정도만 발간하죠. 그래서 우리 만화도 질적 향상이 불가피해졌죠. 단순비교가 곤란한 점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우리 만화의 질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박수영** —— 일본만화가 우리 만화시장을 잡아먹으리라는 두려움은 좀 과장된 점이 있습니다. 실제 각 잡지마다 매호 인기순위발표를 하지만, 우리 만화와 같이 실리는 일본만화의 순위는 중위권에 그치거든요. 일본에서는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작품인데도 말이죠. 아무래도 우리 정서는 우리 만화만이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일본만화가 처음 들어올 때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뒤쳐진 부분이 많았지만, 그 덕분에 질적인 향상도 가져올 수 있었다고 봅니다.

**엄혜진** —— 물론 아직까지 일본만화와 동등한 경쟁력을 가졌다고 보기는 힘들겠죠. 하지만 일본만화가 우리나라 만화시장을 휩쓸 것이라는 생각에는 저도 거부감이 많습니다. 좀더 양질의 만화가 같은 잡지에 실린다면, 저로서도 긴장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씩 경쟁력이 쌓이겠죠. 무조건 막는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음란성이나 폭력성은 또다른 문제고요.

**2001년의 우리만화, 만화가들**

**조재호** —— 환경이 예전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까지 갈 길은 멀니다. 우선 우리만화에 대한 지원이 앞서야겠죠. 우리는 연재해서 출판하기까지 2천만원은 족히 투자해야 하지만, 수입한 일본만화는 그 10분의 1 정도면 단행본 하나가 출간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만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는 애정이 먼저 앞서야겠죠. 최근에는 인식이 많이 바뀌어 만화계로 들어오려는 사람이 많은데, 너무 환상만 키워주는 것도 문제입니다. 단계에 맞게 우리 만화의 질을 향상시키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엄혜진** —— 저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만화가가 되고 싶을 정도로 지금의 상황에 만족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손재주는 대단하지요. 만화라는 게 시작부터 끝까지 사람의 손을 거쳐야 하는 작업이 아닙니까? 사회전반에 만화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조성되면 실력있는 만화가들이 성장할 풍토는 무궁무진하다고 봅니다.

**박수영** —— 우리나라 사람들이 손재주가 좋다는 말은 저도 인정합니다. 이제 우리 만화산업도 옛날과 달리 여러 차원에서 실력이 성장해 독자들의 취향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림뿐만 아니라 재미의 측면에서도 우리만화가 결코 외국만화에 뒤질 게 없습니다. 동등하게 그림·내용에 걸쳐 경쟁력 있는 작품을 내놓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 정리 · 김연수 기자